



대형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
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
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
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령
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삼의 고쳐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 묻는 이에게' 담당자 양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둘로 보지않고 놓아야 열쇠 얻어”

15면에서 계속

년원의 한 스님을 찾아 뵙고 상의를 드
렸더니 ‘둘로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후 또 바람부는
소리가 나면서 저를 괴롭히길래 ‘주인공,
내가 하는 것이지. 이제는 내가 하는 것
을 알아야 했어.’ 하니 할머니가 나타
나려 하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뚝이 시원해지더니 머리로 개운
해지고 지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스님, 지
금껏 제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제가 어
떤 이유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는 어떻게 수행을 해나
가야 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 그것은 당신이, 주인공이 당신한
데 나타나 주리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건 바깥으로 끄달렸다는

죽어있는 걸 봐도 ‘주인공 둘이 아니잖
아. 저 인연도 좋은 인연으로 만들 수 있
는 건 주인공 너밖에 없어’ 하고 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리 작은 생물
들도 예전같이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
금은 몰려서지 않는 믿음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그런 옛 인연이 생각할 때는 어
떻게 생각을 바꿔놔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 이것이 죄가 되고 안되고는 그
생각 차원에 따라 있다고 봅니다.
공한 도리를 스스로 알면서 들 아닌 도
리를 행한다면 아무렇게나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는 않게 되죠. 그러나 당장
내 앞에 죽이지 않기로 안되고끔 닦던
것. 예를 들어 부모를 봉양한다든가 뒷사
람을 봉양한다든가 하여튼 산 생명을 죽
이게 됐을 때, 이럴 때 이 공부하는 사람

“보이는 것도 거기 놓고 들리는 것도 거기 놓고 모든걸 감사하게 봐야지 그걸 좇아가면 안됩니다”

해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꿈으
로도 나타나고 온통 다른 모습으로 나부
켜 아단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
내가 하는 걸 알았어’ 하니까 그것이 나
오다가 없어졌다 그랬죠? 그런 거예요.
주인공이란 건 이게 절대적이지요. 당신
이 당신 뿌리를 믿지 못하면 이 세상에
누굴 믿어요? 믿지 못하니 딱한 허공에
뜬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거기 놓
고, 들리는 것도 거기 놓고, 모든 걸 감
사하게 봐야 이랬지. 그걸 좇아가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선 현실이예요. ‘너가 있다는 건 너만이
중생할 수 있어.’ 하면 눈뜨고 현명하게
나타는 걸 말하지, 꿈으로 나타나고 눈
깜짝 뜬 때 나타나고 이러는 게 아니요.
현실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모
습이 따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당신 모
습이 바로 주인공의 모습이에요. 참 당신
이 있다면 당신의 걸모습 안에 있어요.
공부라고 할 없지만 내가 산으로
가볼 적에 지금 이를 붙여 말하는 ‘주인
공’을 무척 보고 싶어했어요. 어리석은
공각이었지만 참 너무도 광대하고 묘해
고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그 생각이
없어지기도 전에 안에서 ‘색경을 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색경을 보니까 내
리승이 거기에 비치졌죠. 그리고 또 ‘바
라 그 모습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
니까 이 모습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하
지만 모습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
습이 없어도 공부를 못하고 또 정신계가
깨어도 승장이 되니 무효가 되니까요.

☞ 그리고 못났든 잘났든 내면에 종자의
뿌리는 바로 자기를 리드해가는 신장이
라는 겁니다. 이리해서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니 어떤 일이 닥쳐도 무조건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해! 이거는 주인공에서 하는 거니
...’ 하고 자기는 속 빠지지만 말입니다.
큰 심부름꾼일 뿐이고 몸을 움직여리
기 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심부름꾼이
무엇 나사면 되나요? 주인이 하계끔 다
들어 먼저야죠. 그러면 물리가 터지게 되
니 지혜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게
부러진 게 없어요.

살생을 많이 했습니다

☞ 큰스님 가르침 중에 ‘알고 몰라
아지 모르고 모른다면 안된다’고
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내게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살생
! 인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 이
부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많은 살생을
했습니다. 저는 어릴적에 고기도 많이 잡
고 산으로 들로 다니며 뱀도 많이 잡
고 개구리도 많이 잡았습니다. 이 법을
나고부터는 미안하다는 생각은 했습니
만, 내가 둘로 때린 뱀이 아픈 몸을 끌
! 곁에 들어가는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 생합니다. 스님의 법문을 듣고나서는
! 으로 그 생명들에게 잘못했다는 생각
! 하면서 요즘은 길을 가다가 들짐승이

들은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것을 일임하
고 깊이 측은하게 생각하면서 자기 몸과
그 모습과 죽이는 모습, 그것과 그 마음
과 내 마음이 둘 아니게 자기한테로 한
나로 돌려놓으면 그 의식은 인간으로 천
도가 될 것이며 또 그 모습은 약으로 쓰
일 것입니다. 양면으로 쓰게 되죠.

☞ 그런데 만약 이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잡아죽인다면 크게 죄업을 짓게 되는 거
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옛날에 백정들
릇을 하던 어떤 사람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달고 보니 몇 십년 전부터 죽
인 생명들이 현실에 하나로 되면서 전부
천도가 됐더라입니다.

☞ 그러니까 죄가 싹 없어진 거죠. 한생각
에 한깨달음에 그냥 멀고 가까운게 없이
순순간에 다 해치워 버린 거죠. 그런 것
과 같이 때도 어릴 때 그렇게 했어도 지
금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남의 생명
도 귀중하다는 걸 알고 마음을 내고 가
신다면 그것은 다 무효가 됩니다. 왜 무
효가 되느냐?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입
니다. 그러니까 딱의 마음속에 전부 들어
가도 두드러지지 않고 깨내도 풀지 않으
니까 연방 들어갔다가 천도가 되는 까닭
에 그것이 모두가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어느 나라에 난리가 나서 싸우
는데 이쪽 군사는 백 명 밖에 안되고 상
대쪽 군사는 천명이 되더라입니다. 이쪽의
군사가 적으니까 그 군사를 이끄는 대장
이 ‘주인공, 당신들이 꼭 이기게 할 수
있고 이 군사들을 움직이게 살게 할 수
있어. 이 나라 국민들은 모두가 내 형제
요 바로 나이기 때문이야’ 하고 아주 간
곡히 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편 군사
들의 마음이 흩어지면서 서로가 적군인
줄 알고 자기네들끼리 싸우게 됐더라입
니다. 이것이 이러한 이치도 있기에 그래서
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 그러나 그것도 정히 급할 때 응용하는
거지, 급하지 않으면 부처님께서는 쓰지
않습니다. 함부로 누구를 이기게 하고 죽
이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얘깁니다. 그러
니까 우리는 생명 하나를 봐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리고 또 하나 짚고 갈 것은 ‘한생각에 천
도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죽이는 게 아
닙니다. 나한테 그렇게 안하면 안되리만
큼 인연이 왔을 때 마다하듯 말라 한 거
지, 강제로 일부터 때려죽이러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온 것, 내가 꼭
해야할 것을 마다하지는 말라 이런 겁니



그림 · 최주현

다. 그건 왜냐? 상대는 알고 벌써 천도가
되기 위해서 뛰어든건데, 그거를 오히려
마다한다면 알고 뛰어든것인 그 영령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간혹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웃집에 죽
은 분이 꿈에 나타나서 내 말 좀 해달라
고, 스님한테 가서 내 얘기 좀 해달라
고 간청을 하더라입니다. 말만 들어도 자기는
천도가 되겠으니 알고서 그런 것이거
든요.

어리석어지고 똑똑한 사람이 앞에 다
치면 내가 똑똑해지고, 크면 큰 대로 작으
면 작은 대로 응해주라는 얘깁니다. 그
렇게 돼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전부가 공
덕입니다. 공덕 아닌 게 하나도 없죠. 한
생각 한마음이 전부 보살로 화해서 응신
이 돼주죠. 때로는 법신이 되고, 때로는
보현신이 되어 나투지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밀정토라 할 수 있
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할 때도 남

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됐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며, 뭐든지 내
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봤
다, 내가 들었다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모두가 부처 아님이 없
는 까닭에 도라는 것도 부처가 그냥 생
활하고 가는 것이 전부 도인 것이지 도
아닌 게 없죠. 쉽게 말해서 부처님의 생
각 자체가 바로 도입니다. 즉 생활이 도
의 근원이 되고 그 근원에서 일거수 일
투족 그 공법이 나오기 때문에 ‘도’라고
하죠. 말로 알리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뿌리에서 그냥 다 말기시엔 뜻으로 알게
될테니 그렇게 노력하세요.

오랫동안 컷병 앓고 있어요

☞ 저는 귀가 아프지 오래됐는데 아
직껏 낫지 않고 간혹 통증이 옵니
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요.

☞ 내가 의사는 아니지만 왔으니 하
나가 돼줘야죠. 열심히 관하세요.
관하라는 것은 이 몸통이 속의 생명들이
그 통신을 받아야 작용을 해주기 때문입
니다. 다시 말하자면 몸속의 각 기관들은

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인공한테 ‘그
런 나쁜 꿈을 꾸게 한 것도 주인공이
까 안꾸게 할 수 있는 것도 주인공 너
잖아’ 하고 관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
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관해줬어
요. 그러다가 문득 인연이라는 것에 대해 생
각이 났습니다. 성당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슨 일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잘못된 것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마
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왜 좋은 일든
나쁜 일든 자기 주인공에 관하게 되는
지, 서로 다르게 공부하는지 궁금합니다.

☞ 개신교나 가톨릭이나 불교나, 외
국을 가봐도 전부 자기는 속 빼놓
고 타의에서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 또 남을 해롭게 하든 사기
를 치든 자기가 저질러 놓고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그렇게만 하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고해성사를 했다 해도 자기가 한 일은
지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한 거니까 자기가 해결을 해야
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도 자

“자기가 잘못된것 자기가 수습하듯 땅바닥에 넘어 졌다면 자기가 땅을 짚고 일어서야지 누가 대신 해주겠습니까”

소임을 맡아있는 공장이라고 할까. 그런
생명들이 통신을 하달 받으려면 이 마음
속에서 대뇌로 올라가서 정수에 입력이
돼야 하고 그것이 다시 사대로 통신이
돼야 현실로 나오게 돼있거든요.

☞ 그러니까 그것은 아주 첨단에 가까운
심성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심성과학
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렇게 의학적이고 과학적으로 돼있는데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미
쳐 따라갈 수 없으니깐 풀 수 없는 문제
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오래 너만이고
칠 수 있어. 네 몸이니까, 네 몸을 이끌
고 다니는데 건강하게 이끌어야지 통중
이 오게 해서 되겠어?’ 하고 진실로만 관
해서 들어간다면 금방이죠. 멋진 묘법입
죠. 그런데 그 높고 광대한 마음을 모르
시고 말로만, 이론으로만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한걸음 한걸음 진실되게 실천하
게끔 하세요. 병이든지 우환이든지 뭐든
지 나로부터 있는 것부터 차차 해나가야

기가 수습을 해야 하고 자기가 돈을 떨
어뜨렸다면 자기가 돈을 집어야 하고, 땅
바닥에 넘어졌다면 자기가 땅을 짚고 일
어서야지 누가 대신 해주는 사람 없어요.
대신 죽여주는 사람, 아파주는 사람, 먹
여주는 사람, 잠자주는 사람, 통 누어주
는 사람, 깨우쳐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요. 그러니까 자신으로부터 주체가 하
는 얘기가. 예수님도 대중들에게 말하
기를 ‘나를 믿지 않고 타인을 믿는다면 도
깨비 장난감이고 귀신장난 같은 거니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잘못했
느냐 하면 ‘나 라고 했기 때문이야. 그
나니까 ‘틀은 사람 각자 너’ 라고 해야 될
텐데 ‘얘기하는 사람 나’ 라고 했으니, 예
수님도 생각은 각자 자기 자신을 믿어야
한다고 하면서 말을 잘못했는데 말하자
면 신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딴 것은 믿지
말아야겠구나’ 한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
께서는 ‘못났든 잘났든 각자 너가 이 세
상에 태어났으니 세상이 있고, 너를 형성
시킨 보배가 바로 너의 불성이니라, 너의
뿌리니라’ 이러셨거든.

☞ 그러니까 이 몸통은 나무로 비유했
고 그 주인공은 바로 뿌리로 비유를 했
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무는 네 뿌리
를 믿어야 공덕이 있고 네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느니라.’ 했거든. 그랬으니까 ‘따르
는 따르되 믿는 것은 너를 믿어라’ 고 하
셨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타의에 의
존하고 믿고 그러는 게 기복이란 얘깁니
다. 기복을 믿어서는 공덕이란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자꾸 바깥으로 끌려서
영계성이나 유전성을 끌어들이는 것이 되
지요. 그래서 그 문제가 자식들에게까지
확대가 되기도 하고 말야. 자기 뿌리만
믿는다면 그런 일은 없을텐데 안타까운
일이지.

종교마다 수행 다른 까닭

☞ 저는 학생인데요, 제 친구 얘기
를 하였습니다. 친구 꿈에 흰 옷 입
은 사람과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자주 나
타서 무섭다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
이 다 나쁜 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 선생님께 여쭙으더니 선생님은
천주교 신자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
를 해서 그런 꿈을 안꾸게 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 기도

찰나찰나 나투며 응해주는 마음이 부처 생명 하나를 봐도 내생명 같이 생각해야

여러분이 정신계의 모든 이치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시니까 답답한 게 많으
시겠지만 그러나 한편은 그렇게 안해놓
으면 무질서하게 될 겁니다. 수행을 거쳐
서 인연의 도리도 알고 자기의 습이 다
녹은 사람이려면 모두를 불쌍히 여기고
어부만저 주재지만 습도 녹지 않은채 무
조건 알게 해놓으면 ‘과거에 내가 나한
데 이랬지?’ 하고 아야 도끼 들고 다닐
겁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 열쇠를 말
가는 게 아니라 높고 낮음을 들로 보지
않고 일체를 다 놓고 여여하게 사는 사
람 앞에 열쇠를 맡기게 되고 그래서 정
신계의 이치를 알게 하고 보게 하고 듣
게 하고 하게 하고 이런 겁니다.

공덕 · 비밀정토의 의미

☞ 생각과 공덕, 비밀정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비밀정토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것도 둘로 보지 않는 것을 말합니
다. 일체 모습이 내 모습과 물이 아니
일체 차원을 논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 차원이 5차원이라면 아주 어리
석은 1차원 2차원 이런 것을 따지지 말
고 어리석은 사람이 앞에 다쳤으면 내가

의 눈에 띄려고 애쓰지도 말고 내가 할
일을 꾸준히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비밀정토를 알 수 있겠죠.

‘부처’ ‘도’ 가르쳐 주십시오

☞ 부처와 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부처라는 것도 이 세상이 둘이
아닌 까닭에 부처라고 하는 겁니
다. 예를 들어 딱의 몸통이 속에는 많은
생명들이 더불어 같이 움직여졌죠? 그
러기 때문에 부처라고 한 겁니다. 다시 말
하면 부처 아닌 게 없다 이 소립니다. 나
혼자라 해도 혼자가 아니거든요.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한 덩어리의 개체입니다.

☞ 물 한 모금을 마셨어도 누가 물을 마
셨을까요? 더불어 같이 마셨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도 그것이 내가 한 겁
니까? 더불어 같이 한 거죠. 그러기 때
문에 부처라는 건 공해서 찰나찰나 나투
면서 화해서 응해주는 그 마음이 부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내

한마음